

국토교통부 1차관, “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역량 집중” -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임대 실적 점검, 추진방향 논의 -

□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10일(화) 오후 신축매입임대주택* 공급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 수도권 지역본부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.

* (신축매입임대)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, 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

□ 국토교통부는 「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」(8.8.)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,

○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·금융 지원을 강화하고, 전담인력을 확충해 매입속도를 제고하는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.

□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LH 관계자가 참석하여, 신축매입임대 접수 및 약정체결 등 진행현황을 점검하고,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.

□ 진 차관은 “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목표 11만호 중 LH가 10만호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예정 물량의 조기착공을 위한 LH의 적극적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”하다며

○ “내년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,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줄 것”을 LH에 당부하였다.

2024. 12. 10.

국토교통부 대변인